

# 전주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 경제적 부담 완화 위해 시술비 금액·지원횟수 확대 추진

전주시가 아이를 낳기 원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에 소요되는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및 인공수정 5회를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했으나, 올해는 횟수와

금액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가정의 경우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는 기존 7회(90~110만 원)에서 9회(최대 110만 원)로, 동결배아는 기존 5회(40~50만 원)에서 7회(최대 50만 원)로 각각 지원횟수와 금액이 확대됐다. 또, 인공수정의 경우에도 5회(20~30만 원)로 최대 30만 원)로 상향 지원된다.

만 45세 이상 가정의 경우, 신선배아 90만 원, 동결배아 40만 원, 인공수정 20만 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혼 인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되는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난임진단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정부24'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주시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1-62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 준비과정에서의 경제적 어

려움을 줄이고, 희망하는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출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난임과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 대한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는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6개소(중앙1, 권역5)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난임부부는 중앙상담센터(02-2276-2276, www.mm22762276.or.kr)와 각 권역 센터로 상담을 예약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 청소년 지역자공심 향상 '앞장'

### '야호학교에서 함께하는 전주사람 프로젝트' 1기 발표회 개최

전주시는 지난 21일 야호학교 인후분관에서 전주의 기본 지식을 제공해 창의형 미래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해 기획된 '야호학교에서 함께하는 전주사람 프로젝트' 1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주사람 프로젝트'는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의 골격을 소재로 코칭 학습 습관 형성과 스토리가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촬영 및 편집 교육 등 스스로 전주의 역사를 배우고, 직접 전주에 대해 영상을 기획·제작해 보며 지역의 자긍심과 자기 주도 역량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 참여한 청소년들은 야호학교 코칭단과 함께 총 8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 활동 내용은 △전주 글감 코칭 학습 △영상 촬영 및 편집 활용 교육 △우리 지역의 역사 및 문

화 소개 시나리오 제작 △영상 촬영 활동 △티빙 시나리오 구성 등 기 및 과정 발표 △최고의 작품 투표 및 선정 △시상식 및 활동 소감 나눔 등이다.

이에 앞서 시는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총 12주의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명의 야호학교 코칭단을 양성했으며, 이후 야호학교 코칭단과 함께 올해로 3년째 신흥중학교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수업을 통해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의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데 앞장서왔다.

올 하반기 전주사람 프로젝트에는 동중학교·오송중학교·효문여자중학교의 청소년 80여 명이 동참 예정으로, '야호학교에서 함께하는 전주사람 프로젝트' 2기는 하반기에 참여할 청소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시민에 한시적 무료 개방

### 31일까지 평일 오전 10시·오후 2시 일부 시설 견학 프로그램 제공

'기생충'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들이 촬영된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전주시는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로 방문을 제한해온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부터 각각 1시간 동안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촬영시설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내 S1 스튜디오 △S2 스튜디오 △아외세트장 등으로, 방문객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촬영소 정보와 역대 유치 작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는 지난 2008년

개관 이래 총 80여 편의 영화 촬영을 유치하고, 이곳에서 촬영된 △부당거래 △범죄도시 △기생충 등의 영화가 흥행하면서 영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매김 했다.

전주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영화·영상 산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작자, 영화 촬영 현장이 궁금한 학생 및 시민에게 이번 전주영화종합촬영소 개방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견학 사전 신청 문의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실(063-222-02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영화종합촬영소가 한시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 효자동 CGV사거리에서 효자 2-3-4동 전주시의회 의원선거에 나선 김성규, 전유미, 이대성 후보와 함께 합동유세를 펼쳤다.

## 동네책방서 유명 그림책 작가 북콘서트 열려

### 전주시, 정진호 작가와 '그림책을 읽는 방법' 주제로 이야기 나누

### 29일까지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행사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그림책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가 전주지역 동네책방에서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19일 동네책방 '잘 익은 언어'에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일환으로 정진호 작가의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정진호 작가는 지난 2014년 도서 '위를 봐요!'를 출간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발간된 '심장 소리'를 포함한 총 19권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그림에 건축적인 요소를 반영한 개성으로 지난 2018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라가치상 예술건축디자인부문을 수상한 그림책 작가다.

이날 북콘서트에서 정진호 작가는 '그림책을 읽는 방법'을 주제로 참석자들과 함께 작가의 철학과 그림



전주시는 지난 19일 동네책방 '잘 익은 언어'에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일환으로 정진호 작가의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일 개막한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오세나 작가(평화도서관) △배유정 작가(물결서사) △안효립 작가(청동북카페) 등 유명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작가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주가 주목한 작가'를 진행해왔다.

시는 이날 북콘서트에 이어 21일에는 삼천도서관과 인후도서관에서 각각 이기훈·유준재 작가의 북콘서트를 진행했고, 오는 24일에는 서점카페에서 소문경 작가의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송천도서관에서 박정섭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돼있다.

이날 북콘서트에 함께 한 시민은 "평소 작가를 가까이에서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며 "이 시간을 통해 좋은 작가와 작품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고, 앞으로 그림책을 더 즐겨 읽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1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의 북콘서트에는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4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대변력 위해 협치... 시민과 동행"

###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와 합동유세 펼쳐

우범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가 지난 20일 '협치'를 화두로 공식선거운동 이틀째 유세에 나섰다.

우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30분 효자동 CGV사거리에서 효자 2-3-4동 전주시의회 의원선거에 나선 김성규, 전유미, 이대성 후보와 함께 합동유세를 펼쳤다.

우 후보는 "전주발전의 길을 시의회와 함께 하겠다"며 "지역구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세 후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주요약약으로 청년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주 소재 대학에 전주기업 취업반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전주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5년간 자금을 지원해 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우 공공기관과 기업육치, 그리고 기존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기업과 민간이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우 후보는 "전주대변력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 변혁의 길에 시민 여러분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6.1 선거에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알고 펀딩' 맞춤형 교육·워크숍 진행

전주시가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활동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펀딩 교육 등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총 3주간 6회에 걸쳐 지역 주민 커뮤니티와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펀딩 교육 △브랜드 △홍보마케팅 △상세페이지 디자인 등으로 된 '알고 펀딩' 교육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각자의 브랜드 스토리와 사회적 가치,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력 등을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자금을 조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브랜드 컨설팅 전문기업인 '스몰블랜더'와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펀딩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컨

설팅과 방향제시 등이 이뤄져 높은 교육 만족도를 나타냈다.

실제로 전체 교육 참여자 121명 중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2%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타 사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총 6회의 알고 펀딩 교육 중 3회 이상 참여자에게는 클라우드 펀딩 지원 심사 대상 자격이 주어지며, 시는 오는 25일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팀에게는 크라우드펀딩 상세페이지 디자인 및 광고, 팀별 멘토링 등을 지원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각 팀별로 클라우드 펀딩이 만들어 낼 사회변화와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각자만의 사업과 전략을 탐구할 수도 있어 지역 사회 주체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농지취득 자격심사 대폭 강화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투기와 농지 조개기를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이뤄진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향후 농지를 취득할 원하는 시민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해야 하며,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신설돼 이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했으며,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농지 취득자가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농업경영과 주말·체험영농목적의 경우 7일 이내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됐다.

또,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위원회가 구성되며,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관광의 거주자의 농지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드론 1번지, 전주" 조성 행정력 집중

### 김경민 전주시장 후보,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이룩 위해 최선"

김경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는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 전주의 핵심은 드론"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드론 산업혁신지원센터를 확장, 대한민국 드론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발돋움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주는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중심지로 벤처기업부의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추진해 예비 창업자 창작과 시제품제작, 아이디어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드론규제 샌드박스사업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2025년 드론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40여개 관련업체와 드론산업 활성화를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는 도전정신으로 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멋진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드론밸리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주시장에 당선되면 디지털플랫폼 중심도시를 이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벤처기업부에 더 많은 지원을 얻도록 노력하고 비행규제 완화, 기술고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